국내 보호지역의 현황 및 세계보호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 명승·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

김재웅* · 김승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 **천안 연암대학 친환경예과

Research for Current Status of Protected Area in Korea and World Protected Area Designation

- Focused on sacred natural sites designated as scenic site & natural monument -

Kim, Jae-Ung* · Kim, Seung-Mi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Dept. of Eco Friendly Horticulture, Cheonan Yonam College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government-designated cultural heritage that are protected as sacred natural sites, focused on natural monuments and scenic sites, and provide basic research for these cultural heritage to be included in the protected area category.

First, among natural cultural heritage that are designated and protected by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Law, there are 40 scenic sites and 126 natural monuments that have been selected as sacred nature sites.

Second, the study showed that sacred nature sites are sacred places that have been long associated with happiness and misfortune of the villagers, including Dangsan Forest, Seunghwanglim(Forest), and, as physical environment and combination of cultural value, rules, and attitude and belief system toward the land that protect the people. The unique folk beliefs of the region provide strong protection of the place.

Third, although the natural monuments of old and large trees are not included in the protected area as they are recognized sparsely, but can be designated as world protected area as protected areas are set around sacred nature sites.

Fourth, in order to be included in IUCN category, sacred natural sites of scenic sites will need to be managed by specific categories of each area according to the interior status of the designated areas and maintain the sustainability of the natural heritage by protecting both physical and spiritual elements.

Key Words: Dangsanje, Village forest, Folk beliefs, IUCN management category

국문초록

본 연구는 보호지역으로 보호되고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중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대상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이들 문화재를 보호지역 카테고리에 포함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문화재보호법으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자연문화재중 명승과 천연기념물을 대상으로 보호지역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명승40개소, 천연기념물 126개소가 보호지역으로 조사되었다.

* 본 연구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의 '2014 명승자원 활용을 위한 정책기반 적용연구'(과제번호: NRICH-1405-A18F-1) 결과의 일부로 작성되었습니다.

† Corresponding Author : Kim, Jae-Ung, Natur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Daejeon 302-834, South Korea. Phone: +82-42-610-7622, E-mail: kjungs97@gmail.com

둘째, 조사결과 자연문화재에서의 보호지역은 마을에서 ‘당숲’, ‘성황림’, ‘신림(神林)’등으로 오랫동안 마을사람들의 행(幸) · 불행(不幸)에 관계된 성스러운 대상이었으며,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와 규범, 토지에 대한 태도와 신앙관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된 결과물로서, 주민들로부터 마을을 지켜주는 신성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지역의 독특한 민간신앙 등으로 인해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천연기념물 노거수는 점적인 형태로 인식되어 보호지역에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설정되어 있어 세계보호지역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명승의 자연성지는 IUCN 카테고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계보호지역으로 설정함에 있어 명승 내부의 공간별 특성에 따라 자연성지를 비롯한 개별 카테고리를 세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세계보호지역으로 관리하여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당산제, 마을숲, 민속신앙, 보호지역 카테고리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과거 개발 일변도의 산업화로 인해 자연환경의 파괴가 지속 되어 왔으나 자연생태계의 환경악화는 인간의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되돌아 왔다. 자연환경의 보전에 대한 각성의 움직임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의 위협성이 커지면서 지역과 국가를 초월한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보전운동으로 발전하여 왔다. 유산개념으로의 인식이 확대된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의 일환으로 전 세계 각국은 보호되어야 할 자연환경의 대상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의 압력으로부터 대비하고 있다.

보호지역은 문화재 등의 문화적 유산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한 나라에서도 각종 법적 규제에 준거하여 다양하게 규제되고 있다. 이 중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자연성지의 개념은 특정 민족이나 공동체에게 특별한 영적 중요성을 갖는 육상 또는 해상의 지역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큰 중요성을 인식하여, UNESCO에서는 2003년 체결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ICH :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과 같은 국가간 협약을 통해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을 선정하여 보호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자연성지와 관련된 걸작들이 선정되고 있다. 또한 2004년 생물다양성협약 제7차 당사국회의(CBD Co7) 및 랍사르협약 전문가회의에서 IUCN 카테고리를 보호지역에 대한 국제적 기준으로 공식 채택하였으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는데, 특징은 보호지역 설정에 있어 자연과 인간에 중점을 맞추어 인간과 보호지역의 상호작용을 보호의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이다(Phillips, 2003).

이렇듯 전통적 보호지역들은 보호지역과 유사한 기능과 영적 가치로 인해 접근의 제한 또는 소극적인 관리를 통해 높은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인간공동체가 자연을 보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자연성지는 그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신념에 있어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신중한 보전이 이루어져 환경적 손상을 피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자연성지는 예부터 마니산 침성단과 같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나 민속신앙의 하나인 당제를 지내는 당산숲, 성황당, 사찰과 같은 종교성지에 이르기까지 유형, 무형의 전통문화와 더불어 그 원형이 보전되어 왔다.

1960년대 시작된 정부주도의 사업들은 행정단위의 개편과 인구의 변동으로 인한 농촌의 환경이 변화에 따라 우리민족 고유의 민속신앙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정부 주도의 농촌마을 현대화 정책에 따라 동제와 동제당 등이 사라지기 시작하였으며, 동제는 미신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민속신앙과 제를 올리는 공간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Seo et al., 2010). 따라서 민속신앙을 통해 보호되는 자연성지의 보호지역의 설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보호지역에 관한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보호지역의 주민에 대한 대책미흡, 자치단체의 자발적 협조와 주민 동참의식 결여, 업무다원화에 의한 혼란과 예산의 낭비(불필요한 중복지정), 인력부족과 비효율적 관리(관리계획의 부재 및 비합리성), 관리예산지원 미흡, 불합리한 보호구역 경계설정, 사유지 관리 미흡 등을 국내 보호지역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Heo, 2006). 또한 국립공원을 비롯한 생태학적 위주의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자연성지에 해당하는 당산숲, 마을숲, 노거수 등에 관한 연구로는 Kim(1991)은 당산숲은 주민들의 다양한 사회적, 종교적 활동을 담은 전통문화를 상징하는 대상으로 역사문화자원으로써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지정 문화재중 명승과 천연기념물을 대상으로 자연성지 성격의 보호지역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보호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로 수행되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천연기념물과 명승으로 지정된 전통적 보호지역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나 민속신앙의 하나인 당제를 지내는 당산숲, 성황당, 사찰과 같은 종교성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IUCN의 카테고리적용을 통한 세계보호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본 연구의 대상을 국가지정문화재중 명승과 천연기념물(식물)을 대상으로 하여 자연성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의 범위를 살펴보면 문화재청 2013년 12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명승 106개소를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천연기념물은 희귀식물 및 수림지를 포함한 263개소를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들 조사대상지에 대한 자연성지 해당여부는 2013년 문화재청에서 조사한 '2013년도 자연유산 민속행사 현황 자료'와 '문화재정기조사 자료'를 결과를 바탕으로 자연성지의 여부와 유형을 조사하였다. 자연성지 여부는 주민들에 의해 마을의 당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행해지고 있는 곳과 현재는 당제를 비롯한 민속행사가 이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과거 당제 등이 이루어 졌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들이 신성한 인식하고 있는 곳, 사찰 내부 또는 배후에 위치하여 종교적인 영향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지역 또는 수림지 등을 자연성지로 구분한 후 그 유형을 구분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명승과 천연기념물의 보호지역에 대한 개념

명승 천연기념물 과 같은 문화재의 자연성지는 기원전 약

10,000년 전 농경생활을 시작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변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간의 이용으로부터 보호된 신성한 장소로 인식된 것에서 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Chape *et al.*, 2008), 산림과 같이 자연적인 지역뿐만 아니라 사원과 같이 인공적이거나 기념물적(monumental)인 지역을 포함하게 된다(IUCN, 2012). 또한 특정 민족에서 성스럽게 여겨지는 자연성지는 지구 전체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고유성을 가진 신앙체계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이들 중 상당수는 자연보존과 관련된 윤리 또는 의식체계를 갖추고 있다(Dudley *et al.*, 2005). 즉 전통적인 자연성지(sacred sites)들은 법적 보호지역(protected areas)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데, 이러한 장소에 부여되는 영적 가치로 인해 자연성지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자연성지가 자연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세계유산협회의 문화 경관이 세계유산협약의 제1조에 명시된 '인간과 자연의 합작품'을 대변하는 개념이라 이해하고 있다(Rössler, 2002). 『운영 지침』에 따르면, 문화 경관은 세계유산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문화유산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UNESCO, 2013; UNESCO, 2011). 이 중 '결합 문화 경관(associative landscapes)'은 강력한 종교적, 예술적, 문화적 의미가 '결합되어 있는 경관'이다. 즉, 일견 자연경관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인류의 정신적 의미가 '결부되어 있다' 혹은 '결합되어 있다'는 뜻에서 결합 문화 경관으로 명명된 것으로 이해된다(Jeon, 2013).

특정 민족에게 성스럽게 여겨지는 자연지역은 지구 전체에 걸쳐 분포한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찰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지구상에는 각각 고유한 수천 개의 신앙체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이들 중 상당수는 자연보존과 관련한 윤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에 2008년 IUCN에서는 보호지역 중 성스러운 자연지역을 "자연성지(Sacred Natural Sites)" 정의하였으며 2008년부터 보호지역(protected areas)과 함께 한 후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Table 1. The Classification of Management Category Type(IUCN, 2012)

카 테 고 리		선정사유 및 관리목적
I	a 엄정자연보전지 (Strict Nature Reser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물다양성과 지리·지형적 특징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하게 지정된 지역으로, 과학적 연구조사와 모니터링 인간의 방문과 이용, 영향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제한
	b 원시야생지역 (Wilderness A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특성과 영향력을 유지하고, 자연 상태의 보전을 위한 보호관리 낮은 밀도로 원주민이나 지역공동체가 거주하거나 일부 제한된 개방
II	국립공원 (National Pa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물종과 생태계 특징과 대규모의 생태적 형성 과정을 보호하기 위한 넓은 지역·환경, 문화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교육적, 문화적, 휴양 기회 제공
III	자연기념물 (Natural Monu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물다양성과 서식지와 관련되어 있거나 독특한 자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독특한 자연적 특징을 지닌 폭포, 절벽, 동굴, 마을 숲 등에 대한(종교, 민속신앙)등
IV	종 및 서식지 관리지역 (Habitat / Species management a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생물종 및 서식지를 보호, 복원,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이고 적극적인 간섭이 필요한 지역 야생 관리 및 서식지 등을 감상하고 교육할 수 있는 제한된 개발
V	육상(해상)경관 보호지역 (Protected Landscape / Seasca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적인 관리행위를 통해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중요한 육상(해상)경관으로, 이들 상호작용의 온전함을 보호하는 지역 생물적, 문화적, 경관적 가치의 보호와 유지가 필요
VI	자원관리 보호지역 (Protected Area with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한 자연생태계와 장기적인 생물종의 보호, 유지를 보장함과 동시에 자연생산물의 지속적인 이용과 지역주민의 요구해소가 가능한 보호지역 변형된 생태계를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2/3이 자연상태를 형성하고 있어야 함

자연성지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성지(Sacred Sites)”의 일종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특정 민족이나 공동체에게 특별한 영적 중요성을 갖는 지역으로서 정의된다. 성지라는 더 넓은 카테고리는 산림과 같은 대체적으로 자연적인 지역 뿐 아니라 사원과 같이 인공적이거나 기념물적(monumental)인 지역까지 포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간에 의해 지어지거나 기념물적인 속성을 갖는 상당수의 성지는 그 발생 원인이 된 종교에서 높은 자연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의 많은 전통공동체들은 그들의 영적 신앙에 부합하도록 산, 화산, 하천, 효수, 동굴, 수림지, 나무, 연못, 연안수, 섬 등의 자연지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여 왔고, 이들 중 상당수는 성지로서 보존되었다. 이러한 지역에 신성성이 부여되는 근거는 다양한데 신이나 선조들의 거처이거나, 성수나약초의 원천일수도, 영적인 세계와의 접촉점 또는 “초인간적” 현실과의 소통의 장일수도 있고, 또는 성지순례의 대상이거나 사원, 사찰, 교회의 소재지이거나, 특별한 사건, 성자, 영적인 지도자와 관련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넓은 경관에 걸쳐서는 구체적인 동·식물종에 신성성이 부여되어 보호되기도 한다. 즉 자연성지는 실제로 상당수의 지역 공동체 입장에서 인간과 자연 간의 영적 연결고리를 보호하여야 하는 이유와 자신이 사는 곳의 생물다양성 보존 등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 없이도 자연지역을 보호하게 된다(Oviedo and Jeanrenaud, 2006; IUCN, 2008).

이는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자연지형 또는 자연물에 대한 고유한 정체성과 정서가 담겨있는 천연기념물과 명승 등의 국가지정 문화재가 해당될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지역 원주민의 정신세계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가스카의 암브레산 국립공원(Montagne d'Ambre National Park), 불가리아 릴라 수도원(Rila Monastery), 빌카노타 종교공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Figure 3 참조).

이와 같이 인간에 의해 조성되거나 기념물적인 속성의 성지의 중요한 핵심은 인간의 영적관념에 영향을 주어 어떤 강력한 법규나 규제보다도 강력한 보전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Figure 1. Dangsang Forest as a Component in the Mungyeongsae-jae Pass

Figure 2. Dangsang Forest as a Component in the Dinosaur Track site in Jeon-ri

2. 보호지역의 국제적 현상 및 IUCN 카테고리

IUCN의 보호지역 카테고리는 그 지정목적에 따라 총 7개로 구분하여 분류되고 있는데, 관리의 목적 및 선정사유에 따라 카테고리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Table 1 참조).

IUCN 카테고리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를 살펴보면, 호주는 1999년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보전법(EPBCA, 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의 제정을 통해 IUCN 카테고리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대략 50개가 넘는 다양한 보호지역의 관리목적은 IUCN의 정의에 따라 개념적으로 IUCN 보호지역 범주 중 하나를 취하여지정목적과 가치에 따라 복합적 분류(Multiple category)를 적용하는 등 IUCN 카테고리 시스템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Heo et al., 2007).

보호지역(protected areas)에 대한 역사에 있어서 자연성지는 IUCN카테고리 Ia “엄정자연보전지(Strict nature reserve)”, 와 Ib “원시야생지역(Wilderness area)”에 비해 관심을 받아 오지 못했으나, 유네스코에서는 최근 들어 자연성지를 인간문화의 가치있는 요소로 인정하고, 자연적인 요소와 인위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경관의 가치를 인식하면서 IUCN카테고리 V “육상(해양)보호지역(경관)”과 세계유산협약 하의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을 활용한 자연보전 접근이 점차적으로 그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Phillips, 2003).

해외에서 보호되고 있는 자연성지의 사례를 살펴보면 마다가스카의 암브레산 국립공원(Montagne d'Ambre National Park)에 위치한 성스러운 폭포로 이곳의 인근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선조들의 영혼이 나무, 물, 바위 속에 살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이 폭포를 찾아 풍요, 다산, 정화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리는 성스러운 장소로써 자연성지로 IUCN 카테고리 II로 설정하여 보호되고 있다(Figure 3-a 참조). 또한 가나에 위치한 성림으로 현재 가나에는 1,900여개의 성림이 분포하고 있다. 이 성림은 성스러운 장소로 여겨지며 보호되고 있다(Figure 3-b 참조).

Figure 3. Sacred Natural Sites of Case in International

IUCN(2008)

불가리아 킬라스도원(Rila Monastery)은 10세기 킬라의 성 이반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불가리아 동방정교회에서 관리하는 자연성지로 영적, 문화적, 자연적 가치들이 효과적으로 통합되어 있어 IUCN 카테고리 II에 해당하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Figure 3-c 참조). 또한 세계 최초의 종교공원인 빌카노타 종교공원은 퀘차인들의 토착공동체의 케로스(Q'eros)에 의해 형성된 자연성지로서 산지를 숭상하며 보호되어야 할 신적인 존재라고 믿고 있으며, 매해 6월 마다 행해지는 순례행사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이러한 민족행사는 자연자원에 대한 관리에 해당하는 의식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있어 IUCN 카테고리 VI에 해당하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IUCN, 2008).

이처럼 역사문화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지역은 자연적, 문화적 역사를 기록하고 정체성을 제공하는 고유한 장소를 생성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따라서 보호경관 접근법은 자연성지의 보전에 있어 중요성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보호지역은 그 특성에 따라 세계보호지역 카테고리의 적용을 달리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국내 문화재보호법 상의 보호지역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다양한 법률로써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보호하고 있다. 이중 문화재청에서 지정·보호하고 있는 보호지역은 명승,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로써 자연유산의 개념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문화재 보호지역은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1965년 천연보호구역이 처음 지정(홍도 천연보호구역,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되었으며, 1970년에 명승(명주 청학동 소금강)이 지정되기 시작하였다.

문화재보호법상 자연문화재로 분류되어 있는 명승, 천연기념물(식물)의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명승은 2014년 03월 현재 자연명승(51개소)과 역사문화명승(56개소)으로 총107개소 216.8 km²의 면적을 지정하였으며, 천연기념물 식물은 노거수 171개소, 수림지24개소, 마을숲23개소, 희귀식물19개소, 자생지13개소, 분포한계지13개소로 총 263건 862.6km²의 면적을 지정·보호하고 있다.

4. 명승과 천연기념물의 보호지역 현황

1) 천연기념물 식물의 보호지역 현황

IUCN의 자연성지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천연기념물 식물은 총 지정건수 263개소 중 123개소가 자연성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노거수는 은행나무 15개소, 느티나무 15개소, 소나무 11개소 등 총 19 종류의 수목에서 85개소가 자

연성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수림지는 내륙지역 28개소, 해안지역 10개소로 총 38개소가 자연성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노거수들에 대한 자연성지 현황을 살펴보면 정기조사 시 마을주민들의 면담과 금줄 등의 흔적을 통해 당산제가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2014년 3월 기준 171개소의 노거수 중 87개소로 전체노거수의 약 51%가 신성한 나무로 자연성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마을, 또는 국가를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거창 당산리 당송(천연기념물 410호), 지리산 천년송(천연기념물 424호), 남원 진기리 느티나무(천연기념물 281호), 영양 답곡리 만지송(천연기념물 399호) 등 40개소에서 당산제를 비롯한 민족행사가 현재까지 지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2, Figure 4 참조).

Figure 4. Distribution Types of Sacred Natural Sites

Table 2. Distribution Types of the Natural Monument Tree

지역	소 계	노거수	수림지	지역	소 계	노거수	수림지
서울	2개소	2개소	-	충남	6개소	4개소	2개소
부산	2개소	1개소	1개소	전북	8개소	6개소	2개소
인천	1개소	1개소	-	전남	30개소	13개소	17개소
대전	1개소	1개소	-	경북	25개소	17개소	8개소
세종	1개소	1개소	-	경남	20개소	18개소	2개소
경기	3개소	3개소	-	제주	5개소	3개소	2개소
강원	8개소	6개소	2개소	광주	1개소	-	1개소
대구	1개소	-	1개소	소계	122개소	85개소	38개소
충북	9개소	9개소	-				

자연성지에 해당하는 천연기념물 중 노거수의 현황을 살펴 보면, 천연기념물 노거수의 수종별 지정빈도와는 비례하지 않으나 느티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등과 같이 비교적 수령이 오래된 직간성 교목으로 우리민족과 친숙한 향토수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을 신앙의 대상이 되는 신체(神體)로써 주민들로부터 신성한 대상으로 인식되어 각별한 보호를 받아 왔다(Kweon, 2013).

Table 3. Sacred Natural Sites of Natural Monuments Category Type

구분	문 화 재 명
노 거 수	<p>*양평 윤문사 은행나무(천기30호), *강진 사당리 푸조나무(천기35호), *강진 삼인리 비자나무(천기39호), *영월 하송리 은행나무(천기76호), 순천 송파사 천자암 쌍향수(천기88호), *삼척 도계리 긴잎느티나무(천기95호), 울진 후정리 향나무(천기158호), *제주 산천단 곶술 군(천기160호), *제주 성음리 느티나무 및 팽나무 군(천기161호), 창원 신방리 읍나무 군(천기164호), 괴산 읍내리 은행나무(천기165호),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천기167호), *안동 송사동 소택나무(천기174호),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천기175호),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천기185호), 청송 신기리 느티나무(천기192호), 청송 관리 왕버들(천기193호), 보은 속리산 망개나무(천기207호), 진안 평지리 이팝나무 군(천기214호), *영동 영곡사 은행나무(천기223호), *구미 농소리 은행나무(천기225호), *양산 신천리 이팝나무(천기234호), *서울 선봉단 향나무(천기240호), 장흥 어산리 푸조나무(천기268호), 부산 좌수영성지 곶술(천기270호), *서울 신평동 굴참나무(천기271호), *삼척 갈전리 느릅나무(천기272호), *영풍 단촌리 느티나무(천기273호), *영풍 태강리 느티나무(천기274호), *안동 사신리 느티나무(천기275호), *김제 행촌리 느티나무(천기280호), *남원 진기리 느티나무(천기281호), *영암 월곡리 느티나무(천기283호), *영풍 병산리 갈참나무(천기285호), *안동 대곡리 굴참나무(천기288호), *합천 화양리 소나무(천기289호), 괴산 삼송리 소나무(천기290호), 문경 화산리 반송(천기292호), *상주 상현리 반송(천기293호), *예천 천향리 석송령(천기294호), 김제 종덕리 왕버들(천기296호), 의령 세간리 은행나무(천기302호), *화순 아사리 은행나무(천기303호), 강화 불음도 은행나무(천기304호), 청원 공북리 읍나무(천기305호), *김해 천곡리 이팝나무(천기307호), 인천 신현동 회화나무(천기315호), 당진 삼월리 회화나무(천기317호), *월성 옥룡리 회화나무(천기318호), *합안 영동리 회화나무(천기319호), *부여 주암리 은행나무(천기320호), 연기 봉산동 향나무(천기321호), 완도 예작도 감탕나무(천기338호), 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천기344호), 영월 청령포 관음송(천기349호), 보은 서원리 소나무(천기352호), 의령 성향리 소나무(천기359호), *삼척 공촌리 읍나무(천기363호), *금산 보석사 은행나무(천기365호), *괴산 오가리 느티나무(천기382호), 괴산 적석리 소나무(천기383호), 강진 성동리 은행나무(천기385호), 진안 은수사 칠실배나무(천기386호), 장수 봉덕리 느티나무(천기396호), 영양 담곡리 만지송(천기399호), *예천 금남리 황목근(천기400호), 청송 홍원리 개오동나무(천기401호), 함양 운곡리 은행나무(천기406호),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천기407호), *울진 행곡리 처진소나무(천기409호), *거창 당산리 당송(천기410호), *지리산의 천년송(천기424호), 문경 대하리 소나무(천기426호), 천안 양령리 향나무(천기427호), 포천 지두리 부부송(천기460호), 강릉 산계리 굴참나무 군(천기461호),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천기478호), *담양 봉안리 은행나무(천기482호), *하동 축지리 문암송(천기491호), 의령 세간리 현교수(천기493호), 나주 상방리 호랑가시나무(천기516호), 보은 용곡리 고욤나무(천기518호), 영양 무창리 산들배(천기519호), 제주 강정동 담팔수(천기544호)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천기545호)</p>
수 림 지	<p>*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천기1호), 남해 미조리 상록수림(천기29호),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천기40호), 무안 청천리 팽나무와 개서어나무 숲(천기82호), *원성 성남리 성황림(천기93호), 함평 향교리 느티나무·팽나무·개서어나무 숲(천기108호),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천기136호),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천기150호), 강진 백련사 동백나무 숲(천기151호), 장성 백양사 비자나무 숲(천기153호), 함양상림(천기154호),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천기169호),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천기184호), 광양 유당공원 이팝나무(천기235호), 고흥 금담사 비자나무 숲(천기238호), 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천기241호), 삼척 갈전리 당숲(천기272호), *부산 구포동 당숲(천기309호), 완도 미라리 상록수림(천기339호), 담양 관방제림(천기366호), 완도 맹천리 상록수림(천기340호), *고흥 외나로도 상록수림(천기362호), *제주 남유리 난대림(천기375호), 성주 경산리 성박숲(천기403호), *영진 자천리 오리장림(천기404호), *의성 사촌리 가로숲(천기405호), 하동 송림(천기445호), 고창 문수사 단풍나무 숲(천기463호), 포항 북송리 복천수(천기468호), 예천 금당실 송림(천기469호), 안동 회화마을 만송정 숲(천기473호), 영양 주사골 시루나무와 비솔나무 숲(천기476호), 보성 전일리 팽나무 숲(천기480호), 화순 개천사 비자나무 숲(천기483호)·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천기489호), 영덕 도천리 도천숲(천기514호), 제주 물장오리 오피로(천기517호),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천기539호),</p>

자연성지에서는 그 집단과 구성원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일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벌이는 제의(祭儀)가 행해졌다. 이러한 제의는(祭儀) 동제(洞祭)·당제(堂祭), 당산제(堂山祭)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설날(음력 1.1)과 정월 대보름(음력 1.15)등의 동절기에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노거수들이 자연성지로 보호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마을을 지켜주는 당산목으로 자연성지와 사찰과 주변마을을 지켜주는 신목으로써의 자연성지로 구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양평 윤문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30호), 금산 보석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365호)등의 사찰 내에 위치한 노거수들은 사천왕을 대신하는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며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왔다.

종교적 성격의 자연성지는 불교신앙과 민간신앙의 신(神)에 대한 기원의례라는 공통점으로 인하여 민속신앙으로 쉽게 교섭될 수 있었으며, 민속신앙에는 불교신앙과 민간신앙의 매개신앙이라 할 수 있는 밀교신앙 요소로 인해 신성한 장소로 보호되었다(Song, 2010).

이러한 노거수들은 한 마을을 지켜주는 영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당제를 올리는 공간이 조성되었으며, 문화재구역역을 중심으로 하여 당산제를 비롯한 민속

Figure 5. The Current Establishing Conservation Area in Protected Area of Old and Big Trees

Figure 6. Sacred Natural Sites of Dangsan Ritual

행사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보호가 병행되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ure 5, 6 참조).

그러나 과거 노거수는 문화재 지정당시 점적인 문화재로써 노거수 자체만을 문화재로 지정되어 IUCN의 보호지역 카테고리들 충족시키지 못하여, 세계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문화재청에서는 노거수 주변으로 문화재구역을 설정되기 시작하였으며(Figure 6 참조), 이에 자연성지를 중심으로 IUCN의 보호지역의 관리목적¹⁾에 따라 세계보호지역 카테고리를 적용한 세계보호지역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천연기념물 식물 중 현재까지 조사된 수림지의 자연성지를 살펴보면 수림지 92개소중 내륙28개소, 해안10개소로 총 38개소가 신성한 장소로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4 참조).

자연성지를 이루는 수림지의 형태를 살펴보면 내륙지역에서는 당산숲의 형태와 당비보숲의 형태, 종교림의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이중 당산숲으로써 보호되는 자연성지들은 원성 성남리 성황림(천연기념물 제93호)을 비롯하여 7개소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자연성지는 마을의 후면부에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외부에서 숲의 존재를 알기 어려운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을 지켜주는 신성한 장소로 접근이 제한되어 온전히 보호되고 있다(Han *et al.*, 2012). 또한 당산숲 형태의 자연성지는 지역주민들에 의해 당산제 등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다²⁾.

당산숲이 보존된 요인은 크게 2가지로 판단 할 수 있는데, Nam and Yoon(2002)은 제도적 장치로써의 규제 및 보호정책이 당산숲의 보존에 결정적 요인으로 판단하였으며, Choi(2007)은 신령스런 숲으로서 마을주민의 관리를 자연성지 보존의 원인으로 분석하였다.

Figure 7. Dangsang Forests of Sacred Natural Sites

종교림으로 보호되는 자연성지는 종교적인 공간, 즉 사찰(寺刹)등의 종교적인 공간과 세속의 경계를 구분하는 역할을 목적으로 단목을 위주로 하여 인위적으로 조성되었으며(Kim, 2011), 특히 사찰주변의 유실수는 사찰의 산림과 주변 마을 사람들의 구휼(救恤)에 이용되었다. 특히 비자나무의 열매는 민간에서 구충제로 쓰이는 약재로서 사찰에서 대량으로 재배하여 민간에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비보숲으로써 보호되고 있는 자연성지는 내륙과 해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중 내륙에 위치한 자연성지는 마을과 인접한 하천변에 분포하고 있으며, 인위적으로 조성된 수림지가 신성화되면서 보호되는 곳으로 단순한 수종이 주를 이루고 있다(Figure 8-a 참조). 이에 비해 해안에 분포하고 있는 자연성지는 해안선을 따라 상록수림을 형성하고 있는데, 상록수림에서는 해송을 중심으로 모밀잣밤나무 구실 잣밤나무, 밤나무, 생달나무, 팡나무, 후박나무, 보리밥나무, 사스레피나무, 동백나무 등의 상록활엽수종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ure 8-b 참조). 이러한 비보숲 기능의 자연성지는 농업과 농어업 중심의 문화를 가진 지형을 중심으로 유교와 풍수지리사상에서 기인한 수구막이와 비보림의 형태가 많이 나타나며 주로 정월 대보름을 기준으로 당산제를 비롯한 마을공동제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영덕 도천리 도천숲(천연기념물 제514호) 등 3개소에서만이 현재까지 마을의 공동제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4 참조).

Figure 8. Sacred Natural Sites of Scenic Sites

Table 4. Sacred Natural Sites of Scenic Sites Category Type

유형	내륙 (28개소)	해안 (10개소)
당산숲	*삼척 갈전리 당숲, 해남 녹우산 비자나무 숲, *제주 남읍리 난대림, *원성 성남리 성황림, 제주 물장오리 오름,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 *충효동 왕버들군 (7개소)	-
종교림	강진 백련사 동백나무 숲,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 고창 문수사 단풍나무 숲,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 장성 백양사 비자나무 숲, 고흥 금탈사 비자나무 숲, 화순 개천사 비자나무 숲 (7개소)	-
비보숲	*영덕 도천리 도천숲, 예천 금당실 송림,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 숲, 영양 주사골 시무나무와 비솔나무, 포항 북송리 복천수, 하동 송림, *의성 사천리 가로숲, *영천 자천리 오리장담, 성주 경산리 성박숲, 담양 관방재림, 무안 청천리 팽나무와 개서어나마, 함양 상림, 광양 읍수와 이팝나무, *제주 성읍리 느티나무 및 팽나무군 (14개소)	*완도 미라리 상록수림, *완도 맹선리 상록수림, *보성 전일리 팽나무 숲, *남해 미조리 상록수림, *예송리 상록수림, 부산 구포동 당숲, (6개소)
어부림	-	*고흥 외나로도 상록수림,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4개소)

어부림으로서 보호받고 있는 자연성지는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천연기념물 제136호) 등 4개소로 조사되었는데, 이들은 마을의 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후박나무, 자금우 및 황칠나무 등의 상록활엽수와 비자나무, 소나무 및 곰솔 등의 나자식물, 개서어나무, 국수나무, 노린 등의 낙엽활엽수와 초본류 등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어군효과뿐만 아니라 태풍 등 자연재해를 막아주는 방풍림의 역할을 하고 있어 마을을 지켜주는 신성한 곳으로 보호되고 있다(Figure 9 참조).

해안지역의 어부림은 단순한 종서식지 관리지역으로의 보호지역이 아닌 자연성지로서의 천연기념물이 주변 서식지 보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자연성지는 전통적 어장의 존

Figure 9. Sacred Natural Sites of Dangsan Ritual

속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에 의해 행해졌던 자연적 또는 문화적 행위들은 예부터 반농반어를 근간으로 살아온 주민들의 생업과 긴밀한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중요한 유산으로써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IUCN, 2012),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천연기념물 제136호)의 외연도 풍어당제와 남해 물건리 방조 어부림(천연기념물 제150호)의 당산제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안지역 수림지의 당제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바다 일에 있어서 민감한 자연환경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 초자연적 존재에 의지하려는 종교적 심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기 때문으로(조경만과 박광석, 1992), 자연성지 내부에는 죽은 나뭇가지도 가지고 나오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보존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조사결과 자연성지는 마을에서 ‘당숲’, ‘성황림’, ‘신림(神林)’ 등으로 불리며, 오랫동안 마을사람들의 행(幸)·불행(不幸)에 관계된 성스러운 대상이었다. 또한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와 규범, 토지에 대한 태도와 신앙관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된 결과물으로써(Shin, 2007), 주민들로부터 마을을 지켜주는 신성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지역의 독특한 민간신앙 등으로 인해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천연기념물중 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에 적용되어 있는 특정도서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림지는 IV(종서식지 관리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자연유산에 대한 세계보호지역 관리에 있어 단편화가 우려되고 있다(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09).

IUCN에서는 2008년부터 천연기념물중 문화적/전통적 특성

유지되어 신성시되고 있는 자연성지를 IUCN 카테고리 III으로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바(IUCN, 2008; IUCN, 2012), 내륙지역의 자연성지에서는 당산숲이 IUCN 카테고리 III 적용이 가능하며, 비보숲은 해안지역의 자연성지에 해당하는 수림지중 비보림과 어부림을 중심으로 IUCN 카테고리 III을 적용하여 세계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에 등제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명승의 자연성지 현황

명승은 2014년 03월 현재 총107개소 216.8km²의 면적을 지정되어있으며, 이중 완도 정도리 구계등(명승 제3호)과 남해 다량이논(명승 제15호),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명승 제59호)을 비롯한 40개소의 명승이 자연성지로서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연성지로 보호되고 있는 명승의 유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비보숲으로써 보호되고 있는 지역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성격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지역, 마지막으로 민간신앙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첫 번째로 비보숲 형태의 자연성지를 살펴보면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명승 제26호), 완도 정도리 구계등(명승 제3호), 영광 법성진 숲쟁이(명승 제22호), 예천 선몽대(명승 제19호), 포항 용계정과 덕송숲(명승 제81호) 5곳으로 조사되었다. 비보숲으로 보호되고 있는 자연성지는 하천과 해안선을 따라 인위적으로 조성된 수림지가 신성화되면서 보호되는 곳으로 민속신앙을 통해 수림지를 포함한 주변 경관이 지속적으로 보존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산업화에 따라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뉴타운 개발 등의 도시개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영광 법성진 숲쟁이(명승 제22호) 주변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명승이 가지는 경관적·역사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명승의 진정성(authenticity)확보를 위해서는 명승지정 구역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자연성지의 영향권으로 확보함으로써 IUCN카테고리에 따라 세계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WDPA)에 등록하여 보호지역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10. Sacred Natural Sites of Protected by Bibo Forests

종교적 형태의 자연성지를 살펴보면 장성 백양사 백학봉(명승 제38호), 남해 금산(명승 제39호),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명승 제59호),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명승 제70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명승 제62호) 등 13개소가 전통적인 신앙심을 바탕으로 사찰과 주변 산림이 지속적으로 보존되어 왔다. 이렇게 보호되는 자연성지는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일반적인 산림에 비하여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한반도 산림에서의 식생학적과 사회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사찰 주변의 다양한 지형·지질로 인하여 생물적, 문화적, 경관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지역 카테고리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Figure 11. Sacred Natural Sites of Protected by Religion

민간신앙에 의해 보존되고 있는 자연성지를 살펴보면 명승제 1호인 명주 청학동 소금강을 비롯하여 거제 해금강(명승 제2호), 진도의 바닷길(명승 제9호),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명승 제13호) 등 20개소가 자연성지로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신앙에 의해 보존되고 있는 자연성지는 높은 신앙심으로 인해 보호되고 있으나, 일부 무속인들의 무분별한 주술행위로 인하여 성지내부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최근 문화재청에서는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명승 제13호)의 수성당(水城堂)을 중심으로 무속인들이 제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당제 등을 이어감으로써 자연성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는 무형의 전통문화와 더불어 자연성지에 대한 원형을 보존하는데 강력한 법규나 규제보다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또한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연성지는 대단위 면적으로 보호되고 있어 성지내부에서도 지형·식생을 비롯한 다양한

Figure 12. Sacred Natural Sites of Protected by Folk Faith

요소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마다 자연성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0, 2011, 2012).

이러한 대규모의 보호지역은 자체적으로 카테고리를 가질 수 있으며, 하나의 보호지역에서 다양한 카테고리를 세분화하여 적용해야 할 필요가 발생하게 된다(Dudley, 2008). 이렇듯 명승은 대단위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유산과 삼신사상을 비롯한 토속신앙들이 복합적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자연유산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 요소와 더불어 그 공간에 내재되어 있는 정신적 요소까지 포함함으로써 명승 안에 존재하는 고유한 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명승이 IUCN 카테고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계보호지역으로 설정함에 있어 명승 내부의 공간별 특성에 따라 자연성지를 비롯한 개별 카테고리를 세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세계보호지역으로 관리하여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론

본 연구는 자연성지로 보호되고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중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대상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이들 문화재를 보호지역 카테고리에 포함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문화재보호법으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자연문화재중 천연기념물 식물을 대상으로 자연성지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문화재를 조사한 결과 총 천연기념물 식물에서는 지정건수 263개소 중 노거수 87개소, 수림지33개소로 총120개소가, 명승에서는 107개소 중 38개소가 자연성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조사결과 자연성지는 마을에서 ‘당숲’, ‘성황림’, ‘신림(神林)’등으로 오랫동안 마을사람들의 행(幸)·불행(不幸)에 관계된 성스러운 대상이었으며,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와 규범, 토지에 대한 태도와 신앙관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된 결과물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마을을 지켜주는 신성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지역의 독특한 민간신앙 등으로 인해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현재 천연기념물 중 노거수는 점적인 형태로 인식되어 보호지역에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나, 당산제 등의 민속행사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노거수를 중심으로 보호지역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거수 주변으로 확보되어 있는 문화재구역의 현황 조사를 통해 보호지역 카테고리의 V, VI를 적용하여 IUCN의 보호지역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천연기념물 수림지는 문화재구역의 현황 조사를 통해 보호지역 카테고리의 III, IV, VI 등을 적용하여 IUCN의 세계보호지역 등재가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명승의 자연성지는 IUCN 카테고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계보호지역으로 설정함에 있어 지정구역의 내부의 현황에 따라 카테고리를 세분화하여 관리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요소와 더불어 그 공간에 내재되어 있는 정신적 요소까지 보호하여 자연유산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성지는 우리 민족의 문화·신앙으로 인하여 오랜기간 동안 유지되어온 보호지역으로 마을 주민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자연성지를 보전하는 활동이 이루어진 장소로써, 현대 사회에서도 전통 문화의 계승과 함께 생태교육 및 체험의 장소로써의 수행이 가능한 가치를 지닌 곳이다. 따라서 자연성지의 생태적 환경과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세계보호지역 카테고리 설정하고 보호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자연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를 세계보호지역의 자연성지에 포함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명승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국가지정 문화재를 중심으로 자연성지의 분포 및 유형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추후 자연성지의 자연환경 조사와 함께 성지 내부의 이용 행태를 분석하고, 세계보호지역 관리 카테고리 분류적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세계보호지역 등제 및 보호지역 카테고리의 재분류를 통해 자연성지의 보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주 1) Heo(2007)의 연구에 따르면, IUCN의 보호지역 카테고리는 지정목적에 근거로 총 7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있으며 보호지역의 관리목표는 '과학적 연구조사', '원생지 보호', '종/유전적 다양성 보존', '환경서비스유지', '특정 자연/문화적 경관 보호', '관광&휴양', '교육', '자연생태계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문화적/전통적 특성 유지'로 9가지로 구분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 주 2) 수립지로 이루어진 자연성지는 그 특성상 신을 모시는 '당숲'의 성격을 가진 숲이 비보의 기능을 겸하기도 하고, 비보적인 의도로 조성된 수립지는 필요에 의해 영적인 가치를 부여받아 신성한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자연성지는 기본적으로 마을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REFERENCES

- Choi, J. U., Kim, D. Y., Lee, S. H. and Kim, S. K.(2007). Perspectives on the Current Condition and Landscape Management Status of the Dangsang Forests in Sungnam-ri, Wonju.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5(3): 82-91.
- Choi, J. U., Kim, D. Y., Kim, M. H. and Jo, L. W.(2012). Perspectives on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as of a Traditional Ecological Landscape as Dangsang Forest and Dangsang Ritual Place in Seoseong-ri, Wando-gun.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0(1): 135-145.
- Dudley, (2008). *Guidelines for Applying Protected Area Management Categories*.
- Han, B. H., Choi, J. W., No, T. H. and Kim, J. S.(2012). Vegetation Distribution Status and Change for Twenty Four Years(1986~2010) of Seunghwanglim(Forest), Wonju.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26(5): 741-757.
- Heo, H. Y.(2006).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model of management effectiveness for adaptive management of protected areas, Ph. D. Thesi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Heo, H. Y., Kim, H., Lee, Y. J. and Kim, S. I.(2007).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IUCN Category to the Protected Areas of Korea.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Korea Environment*, 6(2): 71-96.
- IUCN.(1994). *Guidelines for Protected Area Management Categories*. NPPA with the assistance of WCMC, IUCN, Gland, Switzerland and Cambridge, UK.
- IUCN.(2008). *Guidelines for Applying Protected Area Management Categories*.
- IUCN(2008). *Sacred Natural Sites, Guidelines for Protected Area Managers*. Best Practice Protected Area Guidelines Series No. 16.
- IUCN.(2008) *Guidelines for Protected Area Management Categories*.
- IUCN.(2012). *Guidelines for Applying the IUCN Protected Area Management Categories to Marine Protected Areas*.
- Jeon, J. H.(2013). A Study on the Evaluation and Categorization of National Heritage 'Myeongseung' in Korea from the Viewpoint of World Heritage Concept and its Criteria.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8(6): 929-943.
- Jo, G. M. and Park, K. S.(1992). *Cultural Heritage Sites in Goheung-Gun, Mokpo: Museum of Mokpo National University*.
- Kweon, E. Y.(2013). Restoration Process of Gochang Ogeori Dangsangje- (ritual) and its Folklore Value. *國語文學* 54: 129-153.
- Kim, H. B.(1991). study on the Korean village grove, Ph. D. Thesis of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B. and Jang, D. S.(1994). Korea's Village Forest : Dangsang Forest and Bibo Dangsang Forest in Korean Traditional Village. Seoul: Youlhwadang.
- Lim, E. J., So, H. S. and Lee, S. D.(2012). A Study on the Cultural Landscape Characteristics of Village Forest Sites in the Southern Coast.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0(2): 29-41.
- Nam, Y. H. and Yoon, Y. H.(2002). The Change and Preservation of Village Forests viewed from Historical Background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0(2): 23-32.
-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2009). *Survey State Designated Natural Heritages of the Republic of Korea*.
-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2010). *Survey Study on the Scenic Site landscape Resources & DataBase*, (3)
-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2011). *Survey Study on the Scenic Site landscape Resources & DataBase*, (4)
-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2012). *Survey Study on the Scenic Site landscape Resources & DataBase*, (5)
- Shin, S. S.(2007). *The Find of Korean Traditional Villages and Cultural Landscape*. Seoul:Daega.
- Oviedo, G. and Jeanrenaud, S.(2006). "Protecting Sacred Natural Sites of Indigenous and Traditional Peoples". In Mallarach and Papayannis.
- Phillips, A.(2003). *Management Guidelines for IUCN Category V Protected Areas Protected Landscape/Seascape*. Best Protected Area Guidelines Series 9. IUCN.
- Seo, H. S., Kim, M. T., Kim, M. J., Bae, Y. D., Lee, J. S., Shin, J. S., Jeong, S. M. and Lee, K. Y.(2010). *Historical and Changes in the Annual Customs*. Seoul:Minsokwon.
- UNESCO.(2011). *Preparing World Heritage Nominations*. Rössler, M., 2002, *Linking Nature and Culture: World Heritage Cultural Landscapes*, in Cultural
- UNESCO.(2013). *Operational Guidelin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원 고 접 수 일: 2014년 5월 07일

심 사 일: 2014년 6월 02일(1차)

게 재 확 정 일: 2014년 6월 02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